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대회

근대의 시작,
도시 개발과 종교, 문화 II
토론집

- 일시: 2015년 8월 26일 (수)
- 장소: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04호

등록 및 개회사		■ 사회: 문경득
13:00~13:20	등록 및 준비	
13:20~13:30	개회사	변주승 (한국고전학연구소 소장)
I 부 종교와 사상		
13:30~14:00	■ 발표 1 : 서종태(전주대) 한불조약 이후(1886~1909)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그 특징 - 전북지역 교안(敎案)을 중심으로-	
14:00~14:30	■ 발표 2 : 원재연(전주대) 근대 이행기 호남 유림의 척사론(斥邪論)과 동학(東學) 인식 - 이기(李沂)와 황현(黃玿)을 중심으로	
14:30~15:00	■ 발표 3 : 김건우(전주대) 한말 유학자의 위기의식과 근대문명 담론 비판 - 간재 전우의 양계초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 전병구(전주대) 박학래(군산대) 이천승(성균관대)	
15:00~15:10	휴식시간	
II 부 근대화 문명		
15:10~15:40	■ 발표 4 : 김경남(전주대) 1894~1910년 한국과 일본 근대기록 구조의 중층성과 종속성 - 전북지역 전략적 인프라구축기록을 중심으로-	
15:40~16:10	■ 발표 5 : 이규수(고려대)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진출과 농촌사회 -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 토론 정병욱(고려대) 김윤희(고려대)	
III 부 식민지 개발과 지역지배		
16:10~16:40	■ 발표 6: 마쓰모토 다케노리(도쿄대) 식민지기 전라북도 만경강의 하천개수사업 - '식민지 공공성(公共性)'을 중심으로-	
16:40~17:10	■ 발표 7 : 이정욱(전주대)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 -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와 전북	
	■ 토론 정승진(성균관대) 임숙정(전주대)	
17:10~17:20	휴식시간	
종합토론		
17:20~18:20	■ 좌장 :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토론문>

서종태, 「한불조약 이후(1886~1909)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그 특징 - 전북지역 교안(敎案)을 중심으로 -」

전병구(전주대)

1. 오랫동안 초창기 한국 천주교의 전래와 박해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 오신 발표자께서 개항 이후 대한제국 시기까지 연구의 장을 넓히셨습니다. 특히 개화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던 전라북도는 한국 천주교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 시기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천주교와 지역사회의 갈등인 ‘교안(敎案)’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에서의 천주교의 실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본 논문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교안을 찾아내고 분석하였습니다.

‘교안’은 개화기 천주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불조약이 교안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교안 연구의 시기도 1886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끝나고, 천주교가 세상 밖으로 나와 정착을 해 가는 시기입니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종교인 천주교는 그 위상이 바뀌게 되는데, 박해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한 프랑스는 1886년 한불조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래 종교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조선 정부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중앙 정부의 관리부터 조약 내용을 서로 달리 해석할 정도였으니, 지방 관청의 관리나 일반 민중들의 천주교에 대한 대응이 일사불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교안이라는 다양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일찍이 전국적인 교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제주도 신축교난이나 황해도 해서교안과 같은 규모가 큰 교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별 교안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의 교안 연구는 김진소 신부의 개설서인 ‘천주교 전주교구사’ 외에는 별도의 연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의 전라북도는 박해를 피해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으로부터 피신해온 신자들이 숨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현상이었으며, 개신교도 매우 일찍 전래되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인데다가, 천주교의 이질적인 전례 때문에,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2. 발표자는 2장에서 ‘천주교회의 위상과 전북지역 천주교회의 변화’라는 주제

를 전제하여, 개항과 한불조약 이후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외세의 변화를 통해, 교안의 발생 원인과 교안의 유형 및 횡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 한불조약 이후와 (2) 청일전쟁 이후, 그리고 (3) 러일전쟁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세의 영향력, 즉 당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천주교와 프랑스 그리고 뫼텔주교의 위상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교안의 원인과 유형 및 횡수가 달라졌다는 주장은 참신하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3. 그리고 3장. ‘전북지역 교안의 전개와 그 특징’에서는 이 시기 51건의 교안을 시기별, 지역별로 그 유형과 횡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 1절 ‘교안의 시기별, 지역별 전개 양상’과 2절 ‘교안의 유형’이 같은 이야기가 중복되는 느낌이고, 특히 1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서술하다보니 다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 특이한 사안을 들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하여 전라북도만의 특징을 밝힌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시기별 지역별 분석을 간단히 하고, 크게 교안과 교폐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와의 관계나 동학과의 관계는 전체 교안에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4. 8쪽 하단의 ‘미사의 은혜를 입기 위해’ 라든가 ‘미사에 굶주린 교우들이 미사의 은혜를 입기 위해’ 등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5. 끝으로 <표1>과 <표4>를 보면 1890년 전주 소양의 2건, 1894년 전주 동학농민군과의 2건, 1905년 금구 수류에서 개신교와의 3건과 정읍 신성리에서의 3개의 교안, 그리고 1908년 진안에서의 김양홍 신부와 자위대와의 3개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이어진 것이어서 2~3개로 횡수를 분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토론문>

원재연, 「근대 이행기 호남 유림의 斥邪論과 東學 인식 -
李沂(1848~1909)와 黃玟(1855~1910)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박학래(군산대)

원재연 선생님의 발표문은 근대이행기에 호남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유학자인 海鶴 李沂와 梅泉 黃玟의 시국관 및 동학 인식을 양자 간의 공통점에 기초하여 비교 검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이기나 황현 각각 개인의 생애와 학문 내지 사상에 주목하여 양자가 보여준 시대 인식 내지 동학관, 문학 세계 등등을 검토하는데 그쳤다면, 본 발표문은 이기나 황현 개인이 아니라 두 학자의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양자가 보여준 시대 인식 및 동학 인식을 차례로 검토하고 비교 정리한 것이어서 연구사적 측면에서 한 단계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 먼저 원 선생님의 노고에 같은 연구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문은 일반적인 논문으로서 그 형식과 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원 선생님도 발표문의 말미에 어느 정도 암시하였듯이 완전히 끝맺음이 이루어진 최종 논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자는 다음과 같이 발표문의 틀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머리말>에서는 이기와 황현이 비록 가문과 경제적 기반에서 차이가 있지만 토론과 교류를 통해 공통점이 생겼으며, 격변기의 시대상황에서 인생 궤적이 유사하였다는 점에 기반을 두어 양자의 사상적 경향과 시국관, 그리고 동학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는 논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과 의도에 따라 <2. 교류와 토론>에서는 양자 각각의 삶의 행로를 간단히 살피고, 양자 간의 관계가 물리적 거리에서나 친밀도에서 상당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본론 첫 부분에 해당하는 <3. 시국인식과 척사론>을 통해 황현과 이기의 학문 편력,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과 그 배경, 천주교에 대해 양자가 보여준 척사론적 태도, 그리고 목가에 대한 양자 간의 차별적 인식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본론 두 번째에 해당하는 <4. 동학 인식과 그 변화>를 통해 이기와 황현의 동학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인식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맺음말>을 통해 원 선생님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결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본 평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선 밝힙니다. 다만 발표 내용과 연관된 몇몇 주변 주제에 대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학문적 관심을 가졌던 평자로서 오늘 발표에 대한 논평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질문 내지 보완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는 선에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평자가 질문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원 선생님이 그동안 정성껏 연구한 내용을 오해했거나 혹여 발표문을 오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너그럽게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본 발표문은 이기와 황현의 교유에 기초하여 양자의 공통적인 시대 인식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 선생님도 맺음말 부분에서 언급했고, 평자가 보기에도 양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기반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구하는 과정은 공통점보다는 차별점이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자가 보여준 시국관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좀 더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2. 교유와 토론>에서 양자의 교유 과정, 교유 내용, 그리고 주고받은 영향 등등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의 서술 내용은 각각 개인이 지내온 삶의 역정에 보다 비중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의 전개를 보충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3) <3. 시무인식과 척사론>에서는 양자 간의 공통점 내지 차이점에 좀 더 주목하여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대체로 논문의 주요 내용 진술이 양 학자 개인의 내용을 하나씩 기술하고, 이후에 양자 간의 차이점 내지 공통점을 간략히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이 과연 논문 전개 방식과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 <3. 시무인식과 척사론>에서 목가 인식에 대한 양자 간의 차이점을 적시하였는데, 양자의 목가 인식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여 제시한 내용에 대해 수궁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민족 운동에 대한 참여의 소극성과 적극성 여부와 목가 인식의 차이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평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5) <4. 동학인식과 그 변화>는 무엇보다 양자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기는 당대 현실 변혁의 차원에서 동학농민전쟁에 접근했고,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동학군에서 물러난 후 사상적 입장의 전회를 거친 반면, 황현은 지속적으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동학을 비판 내지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틀리지 않다면, 이 점을 보다 논문에서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논문 전체 구성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각주 32) 이하 본문의 ‘이기’ 는 ‘황현’ 의 오기로 보입니다.

6) <5. 맺음말>에서 제안한 세 가지 내용을 발표 이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제시 내지 제안한 내용은 평자가 발표문을 읽고 급하게 든 생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숙고해서 발

전적인 제안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원 선생님의 혜량을 거듭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MEMO]

<토론문>

김건우교수의 「한말 유학자의 위기의식과 근대문명 담론 비판
: 良齋 田愚의 梁啓超 비판을 중심으로」의 논평문

이천승(성균관대)

‘근대’는 슬픈 우리들 삶의 자화상이고 시점을 달리할 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열강의 침탈 앞에 모든 것을 내맡겨야만 했던 당시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통탄스럽게 우려했던 지식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김건우교수(이하 필자)가 발표하는 「한말 유학자의 위기의식과 근대문명 담론 비판」은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20세기 초, 신문매체를 통해 구학의 완고함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측면과, 신학의 맹점을 꼬집으며 유학적 전통의 장점을 지키려는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간재 전우의 신문매체에 대한 반향과 그 비판근거로 당시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양계초의 담론에 대한 간재의 견해를 대비시켜 기술하고 있다. 간재 전우와 관련된 기존 연구가 주로 성리학적 전통의 계승이나 타학파와의 비교에 치중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성에 근거한 진일보한 시도로 생각된다. 특히 필자가 서론에서 밝혔듯이 서구 근대문명을 본류로 보는 관점에서 위정척사 계열 유학자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역기능을 했다는 혐의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우를 포함한 한말 유학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며, 먼저 논문을 읽어보았다는 장점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필자의 견해를 보충해서 듣고 싶다.

1. 먼저 이 논문은 근대 인쇄매체인 신문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간재의 근대 문명에 대한 위기의식과 현실인식을 진단하고 있다.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간재로 대표되는 구학가들의 완고함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설들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활자로 공간되는 신문매체의 비판에 대해, 전우의 반박은 문인제자들과 주고받은 순한문으로 된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즉 상호공방전이 아니라 신사상을 확장시키는 선봉에 선 언론의 일방적 공세 속에 완고하고 보수적인 의미의 ‘舊學’이라는 명어를 뒤집어 쓴 것이다. 이미 근대화를 당위적 명제로 전제하고 진행된 신문의 논설이었다. 확인가능하다면 신문 발행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이나 그 논설의 주요 필진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구학과 신학을 개념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2. 대다수 신문들이 1910년 정간되었다는 점은 일제 강점기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 땅의 근대지식인들이 新學을 통해 부강한 국

가건설의 모델로 삼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본 모습이 노골화된 것이다. 근대화를 통한 일본의 성장은 결국 우호적 우방이 아닌 서구와 같은 제국주의의 감춰진 모습이었다. 물질문명을 앞세우기 보다는 윤리강상을 통해 전통의 덕목을 고수하려는 유학자들의 우려 역시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이 점을 경계한 것이었다. 이는 기존에 신문매체에서 쏟아냈던 서구 중심적 문명화에 대한 몰주체적이고 맹목적인 열광이 지닌 한계이기도 했다. 신학이나 구학이나를 막론하고 공동의 적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제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던 일본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지식인 사이의 신학과 구학의 갈등을 보는 일본(제국주의)의 시각은 어떠했는지 듣고 싶다.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전우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단순한 내부적 갈등이 아니라 일본을 모델로 한 서구적 근대화의 모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3. 필자는 양계초의 여러 학설과 담론 중에서 종교와 공교, 실리주의와 실행주의, 자유평등과 민권, 그리고 국가주의 등 전우가 비판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그의 다양한 비판적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소재 속에 일본 망명 이후 양계초가 지녔던 사유인 부강한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된다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도출시키고 있다. “양계초가 주장했던 학문의 목표 즉, 新學의 목표란 결국 전우가 언급했듯이 ‘근래 신학은 청나라 사람이 西法을 이어 받은 것으로, 그 요점은 부강에 힘쓰고 빈약한 것을 병합시키는 데에 전적으로 있다’ 고 정확히 지적했다.”

이 점을 보다 부각시키려면 일본 망명 후 양계초가 지녔던 사회진화론이나 부국강병을 전우의 윤리도덕에 대한 강조와 대비시켜 보다 집중적으로 서술하면 좋을 듯 하다. 주지하듯이 양계초의 사상에 동조했던 한말 지식인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진화론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약육강식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수단이 되었고, 일반 대중들에게 근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며 진보적 인사로 자처했던 이들 지식인은 심지어 아시아 연대론에 들러리를 서거나 구미의 강권적 문명화 요구에 몰주체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훗날 한국이 종속적 근대화의 길을 걷게 만든 이념적 선구가 되었다.(이승환, 「근대 동양에서 사회진화론을 둘러싼 담론」 참고)

4. 필자의 성실한 글쓰기는 신문매체를 통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 양계초와 전우의 상반된 견해차이 등을 선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나 대비적 조명을 넘어 필자 자신의 견해도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근대화 과정에서 위정척사 계열 유학자들의 삶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MEMO]

<토론문>

김경남, ‘1894-1910년 한국과 일본 근대기록구조의 중층성과 종속성’ 에
관한 토론문 -

정병욱(고려대)

본 발표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기록관리 시스템의 중층적·종속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해당시기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일국적인 차원을 넘어 한 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 일국적 차원의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완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1. 우선 당시 조선/대한제국의 전체 기록물 중 발표자가 말하는 중층적·종속적 구조에서 생산된 기록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 일본인 고문관 등에 의해 ‘일본식’ 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선/대한제국 내에서 기안과 시행이 이루어지는 자체 완결적인 많은 기록들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층적·종속적 구조를 갖는 기록물의 주체, 분야, 비중, 추이 등을 밝혀주면 논지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다.

2. 아마 발표자가 주장하는 중층적·종속적 구조의 기록물은 일본의 ‘침략사’에 속하는 것 같다. 이는 이것대로 충실히 분석하여 ‘침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분야별 시기별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록물 차원에서 볼 때 자체 완결적인 기록(조선/대한제국, 일본)과 중층적·종속적 기록에 차이가 있는가? 또한 아무리 이식이고 종속이라 하더라도 수용자 측의 변용과 절충이 있기 마련인데, 두 기록에 전통의 흔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3. “인프라 설치” “인프라 구축”, “전쟁기반 구축” 이란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대부분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것 같다. ‘인프라’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예. 부제 ‘~통신망 구축 기록을 중심으로’). 또한 “상위레벨” “하위레벨”은 전문 용어인지, 서술적 표현인지 궁금하다.

[MEMO]

<토론문>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진출과 농촌사회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윤희(고려대)

이 논문은 1910년 이전 일본인의 조선농업으로의 진출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군산농사월보』를 통해 발행주체인 군산농사조합의 설립목적, 주된 활동의 변화상을 재구성하여 일본인의 불법적 농업침탈이라는 단선적 구도로 설명되어왔던 기존연구 관점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토지소유관행과 이중매매의 문제, 한국농민이 일본인 지주를 바라보는 시선, 한국농법에 대한 일본인 지주의 재평가 등에 대한 분석은 일본인의 조선지역화 과정이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논문의 분석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910년 이전 한국인이나 일본인 모두에게 당시 농업투자의 가장 큰 장애는 첫째 토지거래의 불안정성, 둘째 토지세의 지역적 불균등으로 인한 수익예측의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외지인이 토지거래와 경영에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 재정보문인 메가타 다넨타로는 1906년부터 오키나와의 토지조사사업을 모델로 하여 토지조사사업의 전면적 실시를 주장하면서 소작지 조사를 시도했다. 메가타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메가타가 조선을 떠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농업경영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토지조사와 관련한 메가타의 주장은 당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당시 군산지주들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당시 재조일본인 중에는 이토의 통감정치가 재조일본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일전쟁 직후 전라북도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지역이다. 당시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토지의 절반이 상인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였다. 화폐재정정리로 상업이윤이 축소되자 상인들이 토지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894년 이전 부산, 인천, 원산, 서울 등에 이주한 일본상인 또한 1904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4>의 군산농사조합의 토지등록자 중 한국 내에게 이동한 자와 새롭게 일본에서 이주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혹 구분이 된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만약 전자의 비중이 높다면 이것은 군산이 신개척지로 주목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고평가되는 경제적 현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업경영 또는 지주경영이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표4>의 대리인이 거의 일본인인데, 혹 한국인인 경우는 없었는지? 소작지경영일 경우 한국인 대리인이 소작농 관리측면에서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군산농사월보』에서 언급되는 것이 없는지? 또한 오쿠라쿠미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면적이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대리인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역시 직접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부채지주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4. 군산농사조합의 성격은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군산지역 지주의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보장, 농업경영정보 공유, 그리고 소작쟁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활동이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조합은 비조합원 또는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시킴으로서 기존조합원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려는 경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매매를 둘러싼 일본인간의 과열경쟁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새롭게 이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조합의 배타성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군산농사조합이 토지등기업무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유권의 보장이란 활동 이외에도 토지거래의 조정 및 관리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MEMO]

<토론문>

마쓰모토 다케노리, 「식민지기 전라북도 만경강의 하천개수사업
- ‘식민지 공공성(公共性)’ 을 중심으로-」에 대한 論評

정승진(성균관대)

1.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에 의한 직할하천공사(제1호 하천 萬頃江)의 위치설정 문제

- 총독부의 정책체계에서 하천개수사업을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는가? 가령, 산미 증식계획, 토지개량사업(수리조합사업), 농사개량사업 등과 어떻게 대별되거나 관련되고 있는가? 한편, 中規模 河川인 萬頃江은 여타 4大江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4대강이 아니고 왜 만경강인가? 東津江改修工事(1937?)는 왜 지연되었는가?)

2. 연구사의 정리

- 허수열의 최근 논문(「일제강점기 하천개수의 식민지적 성격: 萬頃江改修를 중심으로」,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51輯 2號 別冊, 2012: 25~57)에서는, 만경강 개수공사의 개요(전개)를 약술한 위에, 裡里土木出張所의 職員, 請負제도 등이 분석되고 있다. 1925~35년간 同公사는 공사비의 약 34%가 請負공사였다는 흥미로운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이 글과 관련해 공사비(부담) 배분을 둘러싼 민족별 갈등이 묘사되고 있다(金堤 白鷗面 等地). 호남 일대의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성과로서 一讀의 가치가 있다.

3. “식민지 공공영역”의 (은유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 실체를 구명하려는 同意

4. 지역사회의 水利 傳統: 사업 배경과 관련하여

- 남궁봉(1990, 서울大學博士論文)에 따르면, 三禮·봉동지구에는 17세기 이래 三禮川防이라는 구래의 수리시설(淤)이 존재,, 舊韓末까지 犢走項淤로 장기 존속(삼례 하류의 春浦面 남단에 걸쳐 존재). 이같은 오랜 지역관행(=水利秩序)이 식민지기 들어서 이 일대에 대한 토지개량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의 농업인프라(Infrastructure) 사업을 촉발시킨 것은 아닌가?

5. 萬頃江改修期成會(1921년 결성)의 실체?

- 萬頃江改修組合(1920년대 중반 설립 추정)의 전신은 아닌지?

[MEMO]

<토론문>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
-시정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와 전북-

임숙정(전주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대·소형 박람회와 공진회가 173번이나 열렸다. 조선총독부가 1910~1940년에 일본에서 열린 박람회·공진회에 참여한 것도 104차례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수의 박람회와 공진회가 개최된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이것이 동시에 산업발전을 이끌고 유행과 소비를 창출했으며 민중에게는 유흥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이중에서도 1915년과 1929년의 박람회는 각자 시정 5년 기념과 시정 20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 경복궁을 훼손하며 식민지 권력의 위대함을 전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렇기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두 경성(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이정욱 연구원의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시정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와 전북』은 지역에서 총독부 정치가 어떻게 표방되었는지를 서술한다는 점만으로도 가치가 높은 연구이다. 본 연구가 좀 더 완성도를 갖기 위하여 토론자로서 몇가지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1. 일제 당국의 학술·문화사업은 구관제도조사, 사료 조사 및 편찬, 고적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동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로 보존·가공·선전하는 것이 이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설립된 사실이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施政三十年史』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의 통치 수단으로 의미가 깊었던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한 정의는 글이 진행된 한참 뒤 본론 ‘조선물산 공진회-계몽과 개발’이라는 단락 부분에서 서술되고 있다. 서론에서는 단순히 EXPO라는 개념으로는 글을 시작하는데 1915년 개최된 공진회를 그렇게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하게 하는 우려를 범한다고 생각한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해 현재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와 이 공진회가 일제통치기에 의미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론에 서술되었으면 한다.

2. 당시 물산공진회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전시’란 기획자의 일방적인 공간 연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시선, 즉 관람자의 구경이라는 행동을 전제로 한 공간 연출이다. 그렇기에 일제 강점 세력은 피지배세력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시가 진행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3권을 보면 조선물산회장전경이 나와있다. 이를 살펴보면 공진회 전시관의 건축양식은 크게 전시장 동측 구역에 있던 궁

궐건축의 전통 건축양식과 서측 구역에 있던 신축 건물의 서구건축양식으로 나눈다. 강상훈은 그의 논문¹⁾에서 신축 건물 중 철도관과 연예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모두 르네상스 양식이거나 르네상스 양식에 제체션(Secession) 양식을 가미한 백색의 건물들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의 권위를 나타내는 고전적인 르네상스 양식과 선진성을 나타내는 최신의 제체션 양식이 결합된 것으로, 르네상스 양식과 제체션 양식은 선진성과 근대성을 대표하는 건축적 표

현이었다. 이에 반해 경복궁의 건물을 사용해서 마련된 전시장들은 신축된 백색의 전시장과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경복궁 건물이 부속시설, 후진적 전시물의 전시장으로 전락하여 궁궐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의 궁궐 건축 양식은 낙후성을 상징하는 하듯이 보여주고 새로운 서구의 건축양식은 선진성을 상징하는 구도로 보여지게끔 한 것이다.

건축 뿐 아니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은 개회사에서 공진회 개최 목적을 ‘조선민중에게 新政의 혜택을 자각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内地物산 중 특히 조선에 관계되는 것의 出陣을 촉구하고, 조선의 산업무역의 발달에 투자하고, 축진 개선의 표적을 시범으로 보여 조선인의 구안을 경계해서 그 결과 조선인으로 하여금 깊이 스스로 반성 계발해서 사치유타(奢侈遊惰)의 폐습을 고치고 근검역행(勤儉力行)의 미풍을 조장(助長)해서 날로 산업의 개량발달과 국부의 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기에 전시는 조선이 개량진보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이를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는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안국선이 1915년에 편찬한 소설 공진회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도부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행한 지 다섯 해 된 기념으로 공진회를 개최하니, 공진회는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을 벌여 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경하게 하는 것이어니와, 이 책은 소설 <공진회>를 언문으로 이 책 속에 진술하였도다. 물산 공진회는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이요. 소설 <공진회>는 앉아서 드러누워 보는 것이다. 물산 공진회를 구경하고 돌아와서 여관 한등 적적한 밤과 기차 타고 심심할 적

1) 강상훈, 「일제강점기 박람회 건축을 통해 본 건축양식의 상징성」 『건축사연구』 15권 3호 11-13쪽.

과 집에 가서 한가할 때에, 이 책을 펼쳐들고 한 대문 내려보면 피곤 근심 간 데 없고 재미가 진진하여 두 대문 세 대문을 책 놓을 수 없을 만치 아무쪼록 재미있게 성대한 공진회의 여흥을 돕고자 붓을 들어 기록하니, 이때는 대정 사년 초파월이라.
<출처 : 공진회 서문>

안국선의 공진회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단편소설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으로 당시 지식인이 공진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다. 역시 사회 상류계층이었던 박영철의 시선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식자 사이에 점차 조선을 이해해주시는 분이 늘어난 것은 기쁜 일인데, 아직 일반 국민의 몰이해는 심각하다. 특히 놀란 것은 젊은 신문기자 등은 조선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서와 회화사진 등에 의한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소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한번 조선에 데리고 와서 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조선을 일본에 소개하고 나아가 내선융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가장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번 가을의 조선박람회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인을 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주 좋은 시도이다. <출전 : 內地に旅して, 『同民』 제59호, 1929년 8월 -동민회 부회장 이름으로 박영철이 서술->

박영철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전북 익산 군수를 지냈던 인물로 사회 상류계층이었다. 그는 공진회를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했다. 일반 민중은 ‘조선의 개발된 상황을 공진회에서 목격했고, 사회의 진보발달에 따라 기능을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며, 공진회를 보고 진보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임을 알았다.’²⁾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전시 목적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조선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그리고 그들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졌나. 이것은 조선물산공진회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의 조선물산공진회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朝鮮彙報』 대정 4년 11월호³⁾를 보면 조선물산공진회 특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조선물산공진회 소식으로 가득차있다. 이 호에 부록을 보면 각 부문별 수상자 지역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예상해보면 전라북도는 농업 부문과 관련된 수상자가 많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부포와 같다. 예상대로 농업

2) 이기복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반영된 일제의 식민지 수산정책」 『역사 민속학』 23호 142쪽.

3) 『朝鮮彙報』 대정 4년 11월호 표지

부문에서 전북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전북권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예를 들어 수상한 개인과 단체가 이것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조선물산공진회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명망성을 확보했으며 지역 지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조사라고 생각된다.

3. 전북 물산 공진회에 관하여

각 도별 물산공진회들이 1913년에서 1914년 사이에 집중되어 개최되었는데 이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전초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때 13-14년도 물산공진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수산물과 어업용구가 1915년도 조선물산공진회에 출품되어 또다시 상을 받기도 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동일출품자의 鱒流網, 大刀魚廷繩, 鯛廷繩, 鮫鱈網船 모형등이 다시 입상했었다. (『제1회 全羅北道物産共進會 出品物番號概評』 『朝鮮彙報(施政5年共進會記念號)』, 1915.3 ;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수상인명단」 『朝鮮彙報(施政5年共進會記念號)』, 1915.11.)⁴⁾

앞서 말했듯이 각 도별 물산 공진회는 일괄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는 ‘계획중이던 전북물산공진회는 1914년도에 개최할지 말지 미정이더니 1914년 가을기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총독부에서는 경비로 1천원내외의 보조를 교부한 다하며 전북도의 출품점 숫자는 총 3600점으로 예정⁵⁾’ 하였다.

그래서 1914년 공진회 개최 1일에는 6,587명이 관람⁶⁾하여 1회 공진회가 끝났을 때에는 14만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홍보⁷⁾되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1915년 조선



念記年五政憲
會進共產物鮮朝

日一十月九年四正大自

日一卅月十年四正大至

宮福景城京於

4) 최석영, 「조선박람회와 일제의 문화적 지배」 『역사와 역사교육』 34호 133쪽.

5) 매일신보, 「地方毎日(全羅北道): 共進會」, 1914년 2월 22일

6) 매일신보, 「전북공진회 제 1일」, 1914년 11월 19일

7) 매일신보, 「全北共進會 성공, 入場者 무려 14만」, 1914년 12월 04일

물산공진회가 전주 객사에서 개최되었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좀 더 서술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제목은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 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면서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전북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료의 한계가 있어서 었겠지만 현재 조사 가능한 1차 사료가 적극 활용되어지지 않은 듯 하다. 다음과 같은 1차 사료를 활용했으면 한다.

- 서병협, 「공진회실록」 1916년(협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전북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월요일에 전주시립도서관과 전북학생회관이 휴관일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선총독부,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보고서」 1916년(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입니다.)
-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전라북도협찬회, 「실업수인장」 1915년(대전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가 성남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성남으로 방문하면 볼 수 있으며 문서신청을 하면 3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군산협찬회, 「군산안내」 1915년(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4. 사소한 생각...

순보는 10일에 한번 씩 간행되는 신문이다. 그렇기에 한성순보는 10일에 한번 씩 발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884년 3월 18일과 19일에 신문이 발행되었다. 18일과 19일 신문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똑같다. 그 전에 발행된 날짜 역시 3월 8일과 3월 9일이었는데 둘 기사 내용은 조금 다르다. 이 경우는 그 이전 2월 7일과 8일에도 등장한다. 다음에 발행된 날짜는 3월 27일 한번이었으며 그 다음



은 4월 6일, 4월 16일, 4월 25일이다. 장황하게 갑자기 한성순보의 발행 날짜를 확인하는 이유는 각주 1번 때문이다.

각주 1번에서 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성순보 1884년 3월 19일 각주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 1884년 3월 18일 발행된 날짜에도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한성순보는 가끔 이틀 연속 발간되기도 했다. 같은 내용인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월 19일에 발간된 사료를 인용해도 되지만 3월 18일에 발간된 신문은 백지였고 3월 19일에 발간된 신문은 갱신기에 사료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다른 연구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3월 18일을 각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두 번째는 전북물산공진회가 1914년 1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개최되었다는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개최날짜와 관련된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불가한데, 매일신보를 보면 전북물산공진회는 1914년 11월 17일 오전 10시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신문 보도가 잘못 된 것일 수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날짜가 다른 사료가 두 가지라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5. 결론.

이 논문을 읽으면서 관련 논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당시 사진들과 당시 광고전단지, 당시 전시관 도표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압도당하고 말았다. 2015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는 어마어마했다. 그렇다면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경성과 지역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도출되었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 아마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일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문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앞으로가 기대된다.

-고생하셨습니다-

부표

금패																							
농업		척식(拓植)			임업			광업			수산			공업			교육			경제			
강원도		3								강원도		1											
경기도		15			경기도		1	경기도		4	경기도		2	경기도		16				경기도		2	
경남		7	경남		4	경남		2	경남		2	경남		10	경남		1	경남		1			
경북		11									경북		2	경북		3							
전남		10			전남		1				전남		5	전남		10	전남		1	전남		1	
전북	군산 1	8																					
	옥구 1																						
	김제 3		전북	김제 1						전북	김제 1		1										
	익산 3		익산 1	2																			
충남		7			충남		1							충남		2	충남		1				
충북		5	충북		1															충북		1	
평남		4			평남		1	평남		2				평남		4							
평북		1			평북		2	평북		2	평북		1										
함남		3									함남		1		함남		1						
함북		5									함북		1	함북		1							
황해도		5			황해도		1	황해도		2	황해도		1										
총		84	총		7	총		9	총		13	총		24	총		38			총		4	
은패																							
농업		척식(拓植)			임업			광업			수산			교통			교육			경제			
강원도		15			강원도		2	강원도		1	강원도		11				강원도		2	강원도		1	
경기도		57	경기도		1	경기도		2	경기도		10	경기도		68	경기도		1	경기도		7	경기도		7
경남		33			경남		6	경남		1	경남		44				경남		3	경남		1	
경북		36	경북		1	경북		3	경북		2	경북		28			경북		2	경북		3	
전남		32	전남		1	전남		6	전남		2	전남		28			전남		1	전남		2	
전북	김제 8	29					김제 1						부안		2			전주 1					
	익산 7		전북	익산		2						순창		1					1	전북	진안 1		
	옥구 4		대장촌		1		장수 1					옥구		1							전주 1		
	군산 2		군산		1							군산		2									

	전산 3														전주	1										
	전주 4					전주 1																				
	정읍 1																									
충남		18			충남		1			충남		9										충남		2		
충북		21			충북		2	충북		1	충북		5			충북					1					
평남		17			평남		1	평남		2	평남		15	평남		1	평남				1	평남		2		
평북		6	평북		2	평북		4	평북		3	평북		7	평북		1									
함남		13							함남		3	함남		10												
함북		17			함북		2	함북		2	함북		8									함북		1		
황해도		28			황해도		1						11				황해도				1	황해도		1		
총		322	총		9		33	총		27	총		251	총		3	총				19	총		22		
동패																										
농업			공업			임업			광업			수산			위생및 자혜구제			미술및고고 자료			경제					
강원도		47	강원도		12	강원도		8	강원도		1	강원도		14												
경기도		124	경기도		91	경기도		10	경기도		18	경기도		8			경기도		15	경기도						
경남		74	경남		25	경남		16	경남		4	경남		38	경남		1									
경북		4	경북		24	경북		9	경북		2	경북		20								경북		1		
경북		118	경북		34																					
전남		93	전남		43	전남		17	전남		1	전남		21								전남		1		
전북	익산 8		전북	전주 9		전북	전주 5					전북	익산 2		전북	익산 2									정읍 1	
	옥구 13			고창 1			익산 2						익산 2													
	김제 16			옥구 2			남원 1																			
	무주 1			김제 1			순창 1																			
	정읍 3			남원 1			고창 1																			
	순창 2			군산 1																						
	진산 4			전북 1																						
	전주 3																									
	부안																									

	2																						
	구산 2	구산 2																					
총		59	총		32	총		2		1	총	10								총	2		
총		56	총		15	총		5		2											총	3	
총		71	총		44	총		5		3	총	9									총	2	
총		32	총		12	총		8		2	총	6											
총		41	총		8	총		1		2	총	5											
총		15	총		9	총		4		1	총	18											
총		73	총		11	총		8		2	총	10									총	1	
총		864	총		375	총		103		41	총	171	총	1	총						15	총	12

[MEMO]